

# 시편 23 편

2020 년 3 월 22 일 믿음 속

## 들어가는 말:

지난 주간에 교우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더군요.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Our church lives outside the church building.”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교회는 우리임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매 주일 함께 모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바로 우리임을 재 확인합니다.

지난 두 주간 시편 121 편과 95 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기회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로의 초대하는 시편 95 편 기억하십니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재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수영하면서 물 속에서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요즘, 수영장이 문을 닫아서, 당분간 다른 예배 처소와 시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 1

오늘 말씀도 시편에서 받습니다. 시편 23 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암송 같이 하였던 시편이지요?

특히 이 시편은 장례 식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 시편은 죽은 자를 위한 시편이 아니라, 산자를 위한 시편입니다.

## 【다윗의 시】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시 23: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시 31:3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 23: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 절 말씀: 여호와를 나의 목자이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번역에 보며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필요한 것 다 가졌다.”

지난 번 95 편에서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들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주격이 복수입니다. 오늘 시편 23 편에서는, 주격이 단수입니다. 개인의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 개인의 찬양이고 감사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편 23 편을 오늘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흥흥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는 곳 마다 퍼져있고, 퍼져 나가고 있는 때인데, 이 때에, 적기에, 우리가 시편 23 편을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조심해야지요. 조심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침을 주었지요? 손 잘 닦고,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가능하면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침범하게 하며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마저 의심하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계신가? 진정 우리를 돌보시나? 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 편 말씀은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다시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십니다.

## 2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 보셨습니까? 오래 전, 30 년 전에, 성지 순례 갔을 때에, 본 적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래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축이 주 업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이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21 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3 편 1 절 말씀을, 하나님은 나의 간병인, 돌보인 이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도다.

한글 성경에는 다윗의 시 라고 제목이 붙어있읍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편 23 편 밑에, 제목을 붙히기를, The Divine Shepherd 라고 했더라고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하늘 목자”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보인이 아니라 “하늘 돌보인”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 복음 3 장 16 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 대신 돌보심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어, 지극히 돌보아 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기만 하시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저 백합보다도 나에게 아주 소중한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 6:32)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33) 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정 주시고, 일터 주시고, 교회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갈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도전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매일 매일, 은혜 위의 은혜를 한없이 주십니다.

이제 7 년이 되나요?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른 쪽 다리이지요. 수술 후에, 귀가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서, 브릿지포트 병원에서 하루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 지나고 아침에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통증은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마취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좀 몽롱하였습니다. 수술 후의 몸 상태가 온전치 못했지요. 그런데 아침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 혈압 재고 온도

재고, 그리고 침대 높이를 조절해 주고, 바닥에 떨어진 베개까지 집어서, 먼지 털어서, 제 머리 뒤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돌보아 주는 손길에 감동한 거지요. 난 아파서 누워있는데, 정신이 왔다갔다하여 몸도 가누기가 불편한 데, 간호사 도와 준 거지요.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하늘에서 천사가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몇일 더 있고 싶었습니다. 돌봄을 받는 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돌보인이라면, 땅에 사는 우리는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돌봄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나 괜찮아. 나 건강해. 나 능력있어.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거야. 의존하는 것 질색이야. 도움 받게 되면 자존심 상해.”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약하면 안된다. 약함을 보이면 안된다.” 약한 것이 인간인데, 이런 잘못된 세상 문화로 인하여,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척하고, 있는 척 하고, 아는 척 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래서 잘 난 척 합니다. 사실은 약함 투성이고, 없는 것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고, 염려 투성인데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 장 7 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for he cares about you.” (1 Peters 5:7)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 거리고 속으로 앓고 있지 말고, 다 쏟아 내어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 장 6 절 7 절에서, 권고하기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교우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말씀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명령문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깨져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피곤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할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는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바를 다 고하는, 감사함으로 고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감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 베푸시고 채워주시느, 하늘의 평화, 평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합동 찬송가 487 장 함께 부르면서, 결단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없는 고로 복을 더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뢴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 볼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내가 엄마들을 보냈지 세상에” 어머니 주일 설교에 자주 나눈 예화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돌보신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신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내가 너를, 너희들을, 교회를, 이 세상에 보냈지.”

“왜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왜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

“왜냐고? Why? 내가 너를 보낸 이유이지. That is why I have sent you to the world. “

요한 일서 4 장 9 절 11 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 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은 즉, 우리도 서로 돌보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경제가 곤두박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식당, 술집, 극장, 운동경기 취소, 음악회 취소. 다들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코로나 유행병이 번질까봐요.

그런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앰블런스 운전자들, 병원 청소하는 사람들.. 이 분들의 돌보는 수고가 없으면 어떨하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은퇴하신 간호사들도 다시 병원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원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들의 돌봄의 수고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훈훈해 집니다.

지도자들의 수고도 대단합니다. 국민들을, 주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서너분의 교우들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돕고 싶습니다. 차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음식 샵핑도 대신 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된 요즘, 교우분들이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안부를 더욱 자주 묻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운데 기억합니다.

전화, 이메일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미터 거리를 두고, 말하라고 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유행병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화, 이메일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우리의 거리는 더욱 좁아지기를 바랍니다.

돌봄의 사역이 우리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동네 가운데 더욱 힘차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 나가는 말



지난 주에 씨엔엔 뉴스에 나온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폭탄이 끊임없이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기자는,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놀라운 희생하는 생명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유행병을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과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째: 음식은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굶어죽지 않을 것라는 겁니다. 둘째: 화장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재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바꾸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물 흘러가는 대로 가라는 거지요. 넷째: 이웃에게 친절하세요. 공존 공생하자는 거지요. 다섯째: 예상하는 것보다 더 속히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 기자의 말을 듣고, 참 감사하며 감동했습니다. 너무 움추려들지 말아야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이 기자가 말한 다섯가지 제안 외에 한 가지 더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돌보인 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돌보인이 됩시다.”

합동 찬송가 523 장 “나 형제를 늘 위해.” 부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1. 나 형제를 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늘 위해 정결코
2.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그 일을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면 기쁘게 살리라. 아멘.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지러운 때입니다.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뭐가 뭔지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에, 하늘을 평화로 충만케해 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에 눌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를 기도 가운데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교통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사역에 게으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로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침을 믿습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야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의 가족들과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